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과 교과서의 비교 연구

-2학년 가창 곡을 중심으로-

김 도 수*

차 례

- I. 머리말
- II. 교과서의 발전과정
- III. 교과서의 비교 내용
- IV. 맺는말

I. 머리말

오늘날 PC 통신과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통신 수단으로 불과 수초만에 방안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각종의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를 서로 교환하여 자국의 학술발전에 여러모로 이용함은 물론 앞서가는 선진국의 문물을 자의든 타의든 수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개방화 정책으로 시장 개방은 물론 교육현장에까지 개방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게 되었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선진국의 교육환경,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얻어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의 것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취약한 점은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교육의

* 천안대학교 음악과 강사

질을 높여야 하겠다.

현재 한국의 학교 교육은 국가에서 정하여 주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 과정은 교육의 목표와 학습내용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만든 학습자료가 바로 교과서이다. 학습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장 중요한 학습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교육자들이 교과서 편찬에 대한 연구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함에 따라 1995년 3월 신입생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준한 교과서가 현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이 1997년 12월에 고시됨에 따라 중학교가 2001학년도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다시 편찬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 교육과정을 구현하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학습자료가 바로 음악교과서이다. 이 음악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이 음악적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학습시간에 음악 교과서만큼 중요한 학습자료는 없다고 본다. 때문에 음악교사는 물론 음악 교육학자들이 음악교과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출판된 음악 교과서에도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까지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한 한국의 음악교과서와 외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악교과서를 서로 비교 연구한 결과가 아직 보고된 바 없고,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준한 교과서의 개편을 앞두고 선진 외국의 교과서에 대한 최근의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양국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중학교 음악 교과서 개편 시에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한국과 미국의 음악 교과서의 발전과정은 문헌을 고찰하고, 교과서 내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의 교과서 2종과 미국의 교과서 2종을 각각 선정하였다. 비교 분석할 내용은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 곡 중심으로 제한하였다.

II. 음악 교과서의 발전과정

1.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

한국에 서양음악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885년 이후 미국의 기독교 교단의 여러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찬송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선교사인 스크랜튼(M. Scranton), 언더우드(H. Underwood), 그리고 아펜젤러(H. Appenzeller) 등이 한국 땅에서 선교의 목적으로 여러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들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성경, 기독교윤리, 그리고 찬송가 가창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졌고 나머지 과목은 미국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에서 중요시되는 과목들로 채워졌다.¹⁾ 따라서 한국에서의 초기 서양식 학교에서 찬송가가 음악 교과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06년에 공포된 “보통학교령 시행규칙” 속에 비로소 “창가”라는 과목으로 음악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삽입되면서 부터 단음창가 중심의 음악교육이 시작되었다.²⁾ 그리고 1910년에 음악교과서인 「보통학교 창가집」이 발간되고 이시기에 중학교 교육과정에 가창과 기악이 함께 포함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 한국 교육위원회가 조직되어 중등학교 교과목과 주당 시간표를 정하는 등 새로운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교과목의 이름도 “음악”으로 바뀌게 되었다. 1955년 한국 정부는 중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의 교육자들에 의하여 성문화 된 첫 번째 교육과정이 되었다. 이때에 음악교과서 편찬위원회가 조직되어 제1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가 검인으로 출판되었다. 이후 음악 교과서는 1965년에 제2차 검인정으로, 그리고 1978년에는 제1종으로, 1984년부터 현재까지는 제2종으로 출판되고 있다. 여러 출판사들이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므로 각 학교에서는 형편에 따라 그 중에 한 권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 미국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

미국 음악교육의 역사는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20년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시편가(the psalms) 를 가지고 왔으며 교회성가대나 회중들의 음악지도를 위하여 그 시편 가를 사용하였다.³⁾ 점차 기독교적인 사회로 발전하게 되자 교회에서 주관하는 교회학교에서 혹은 예배 시에 시편 창이 필수적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

1) J. E. Fisher, Democracy and Mission in Korea, (New York: Teachers, Columbia University, 1982), p. 76.

2) 교육부,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부, 1988), 94쪽

3) Harold F. Abels, et al.,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New York: Schirmer Books, 1984), p. 8.

회적 요구에 따라서 최초의 가창학교(singing school)가 1717년에 보스톤에서 설립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부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마침내는 공립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을 촉진하게 되었다.⁴⁾ 가창학교가 번성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시편 가를 위한 출판물이 제작되고 이것으로 가창학교의 음악도서로 사용하게 되었다.⁵⁾ 이후에 가창학교에서는 성악뿐만 아니라 기악과 목도 추가되어 음악교과에 대한 많은 자료가 출판되었다.

1834년 로웰 메이슨 (Lowell Mason, 1792-1872)은 보스톤 음악학교를 설립하여 음악을 직접 가르쳤고, 1837년에 보스톤 공립학교의 교과과정에 음악과목이 포함되자 메이슨 자신이 처음으로 음악수업을 시작하였다. 메이슨이 최초의 공립중학교 음악 교과서인 「Song Garden」과 「School Companion」을 출판한 이후 「Golden Wreath」, 「A Music Reader」, 「First Steps in Music」, 「Music for Children」, 「World of Music」, 「Music and You」등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각 처에서 출판되었다.

1907년에 조직된 전국 음악교육자 협의회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에서 권장하는 학교 음악프로그램이나, Tanglewood Symposium의 권장사항인 미국의 민속 음악과 10대를 위한 대중 음악 및 현대음악 등과 그밖에 Comprehensive Musicianship Project나 Manhattanville Project에서 협의된 사항을 참작하여 교과서가 제작되고, 각 주 교육위원회, 혹은 교육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음악 교과서가 선정되고 있다.

Ⅲ. 음악 교과서의 내용 비교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함에 있어서 양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4종의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양재무와 이흥수의 「음악 2」를 각각 선정하고, 미국에서는 「World of Music」과 「Music and You」를 각각 선정하여 교과서의 내용체계 및 구성, 가창 곡의 취급실태, 가창 곡의 성격, 그리고 가창 곡 지도의 접근 방법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1. 교과서의 내용체계 및 구성

한국의 「음악 2」는 2종 모두 내용체계를 이해, 표현, 감상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4) Richard Colwell, "Education in Music", In H. W. Hitchcock & S. Sadie(ed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American Music, (London: Macmillan Press, 1986), p. 13.

5) James A. Keen, A History of Music Education in the United, (Hanover, NJ: University of New England, 1982), p. 19.

영역에서 소개된 음악적 개념들은 가창 곡의 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창 곡은 별도의 목차를 정하여 수록하고 필수악곡, 중심악곡, 관련악곡 및 참고악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10곡은 필수악곡으로 지정되어 교과서 2권 모두 수록하고 있다 (표1 참조).

<표-1>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내용체계 및 구성

교과서 비교내용		한 국		미 국	
		음악2 (양재무)	음악2 (이홍수)	World of Music	Music and You
주 요 영 역 및 목 차 구 성		3 개 영 역 이 해 표 현 감 상 가창 곡 목차	3 개 영 역 이 해 표 현 감상자료 가창 곡 목차	3 영 역 생활의 음악 음악의 이해 음악의 연주 가창과 경축 (8장으로 나눔)	8 units 음악양식의 탐색 리듬의 역할 리듬과 비트 멜로디 하모니 형식과 양식 형식의 요소 음 색
가창 곡의 순서 배열 및 가창 곡 수 (감상곡 제외)		계절별로 배 열 37곡	계절별로 배 열 24곡	개념에 따른 주제별 순서 (시대별 참고함) 96곡	개념에 따른 주제별 순서 43곡
기 타	평가 지면	없음	없음	12면	없음
	참고 사전	"	"	5면	2면
	색인 목록	"	"	2면	2면
	지면 색채	흑백	흑백	천연색	천연색
총 지면 수		69면	68면	351면	371면

미국의 「World of Music」은 생활의 음악, 음악의 이해, 그리고 음악의 연주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진 것은 한국 교과서의 내용체계와 비슷하나 다시 이를 세분하여 8단원(chapter) 즉, 음악은 모든 곳에, 음악 양식의 과거와 현재, 형식, 합창, 노래와 스윙, 가사와 음악, 뮤지컬 쇼, 그리고 비제의 「카르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비슷하게 「Music and You」의 내용체계도 8단위(unit) 즉, 음악양식의 탐색, 리듬의 역할, 리듬과 비트, 멜로디, 하모니, 형식과 양식, 형식의 요소, 그리고 음색으로 나누어져 미국의 두 교과서가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다.

가창 곡의 목차 배열순서에 있어서 한국의 교과서는 계절을 참작하여 각 곡마다 조성, 형태, 작곡자 등 악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두 교과서는 별도의 가창 곡을 위한 목차가 없으며 개념별로 혹은 시대별로 나누어진 단원학습에서 그 주제에 관련된 악곡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목차를 보고 악곡의 이름이나 기타 다른 정보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교과서의 말미에 악곡을 위한 색인목록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는 별도의 가창 곡을 위한 목차가 없으며 개념별로 혹은 시대별로 나누어진 단원학습에서 그 주제에 관련된 악곡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목차를 보고 악곡의 이름이나 기타 다른 정보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교과서의 말미에 악곡을 위한 색인목록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 곡의 수량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다. 한국의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곡들을 지정해 놓은 반면에 미국의 교과서는 곡들을 자유롭게 수록하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는 공통으로 10곡의 필수악곡을 포함하여 37곡과 24곡이 각각 수록되어 있고, 미국의 「World of Music」은 96곡, 「Music and You」는 43곡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단순히 악곡수량을 비교할 때 한국보다 미국이 2~3배 더 많이 수록하고 있다.

한국 교과서와는 달리 미국교과서는 권말에 “참고은행” 난에서 음악용어 풀이를 위한 소사전과 가창 곡의 색인목록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World of Music」은 매단 끝에 학습평가를 위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의 교과서는 지면이 흑백인 반면에 미국의 교과서는 모든 그림과 사진을 천연색으로 게재하고, 핵심 되는 제목이나 문자, 숫자에도 색채를 사용하여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총지면수에 있어서 한국의 교과서 보다 미국의 교과서가 5배 이상 많은 지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교과서와는 달리 미국 교과서는 권말의 부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몇 가지 유익한 학습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World of Music」은 “참고은행(Reference Bank)”이라고 하는 학습 참고 난을 두어 첫째, 음악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소사전(Glossary)을 수록하였고 둘째, 기초적인 리듬과 선율을 보고 시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보(Music Reading)난을 수록하였으며 셋째, 관현악 연주에 사용되는 각종의 악기에 대한 해설과 사진을 게재한 사운드 은행(Sound Bank)난을 수록하였다. 끝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 곡을 크게 민요와 전통 노래, 공휴일 및 경축일 노래, 그리고 감상을 위한 자료음악 등으로 분류하여 그 곡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색인목록(Song Index)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미국 교과서 「World of Music」은 매 장(chapter) 끝에 학습평가를 위한 문제들을 제시하여 학생 자신의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한국의 교과서는 지면이 흑백인 반면에 미국의 교과서는 모든 그림과 사진을 천연색으로 게재하고, 핵심되는 제목이나 문자, 숫자에도 색채를 사용하여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총지면수에 있어서 한국의 교과서보다 미국의 교과서가 5배 이상 많은 지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과서보다 미국의 교과서가 내용면에서 보다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에 한국 교과서는 가창곡의 수량은 적지만 교사가 학습지도를 조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용체계가 짜여져 있다.

2. 가창 곡의 음악적 성격

(1) 구조와 연주형태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들의 공통점은 단 선율을 화성 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모든 성부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화성적 음악(homophony)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각 교과서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창 곡들이 단 선율로 구성되어 제창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 제창곡 이외에 한국 교과서의 가창 곡들은 2성부 혹은 3성부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 여성, 혹은 혼성 등의 구분이 거의 없고 동성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 교과서의 가창 곡들은 2성부 및 3성부는 물론 4성부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 혼성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표2 참조). 양국의 교과서에 나타난 악곡의 연주형태는 현재 두 나라의 중학교 학급 구성 즉, 한국은 주로 동성으로 되어 있고 미국은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격을 잘 반영하여 주고 있다.

(2) 조성

한국과 미국의 가창 곡의 조성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양국은 다장조보다는 바장조나 혹은 사장조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조성으로 된 악곡이 전체 악곡중 20~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한국의 두 교과서에서 내림마장조, 가장조, 가단조의 악곡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 조성들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선법에 기초한 민요나 전통음악이 양국에서 모두 20%정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 있다. 즉, 한국은 5음 음계를 비롯한 7음 음계의 계면조, 평조 등의 민속음악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르네상스 양식의 선법에 기초한 음악과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음악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 곡들은 반음 올림표(#)나 혹은 반음 내림표(b)의 조표가 두 개까지만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 교과서는 세 개 이상까지 조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교과서는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조성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 교과서의 가창 곡들은 곡중에 전조나 변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교과서는 전조는 물론 변조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창 곡 중간에 임시기호(조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2> 가창 곡의 음악적 성격

교과서 비교내용		한 국		미 국	
		음악2 (양재무)	음악2 (이홍수)	World of Music	Music and You
악곡 의 형 태	단 선율	16 (43%)	12 (50%)	50 (52%)	20 (47%)
	2성부	15 (41%)	11 (46%)	25 (26%)	12 (28%)
	3성부	6 (16%)	1 (4%)	14 (15%)	8 (19%)
	4성부	0	0	7 (7%)	3 (6%)
조 성	다장조	7 (18%)	3 (13%)	18 (19%)	5 (12%)
	사장조	8 (8%)	3 (13%)	10 (10%)	7 (16%)
	라장조	3 (8%)	7 (29%)	10 (10%)	3 (7%)
	가장조	0	0	1 (1%)	1 (2%)
	바장조	8 (22%)	3 (13%)	19 (20%)	6 (14%)
	내림나장조	5 (14%)	1 (4%)	5 (5%)	3 (7%)
	내림마장조	0	0	10 (10%)	4 (9%)
	가단조	0	0	2 (2%)	1 (2%)
	마단조	1 (3%)	1 (4%)	3 (3%)	2 (4%)
	라단조	1 (3%)	1 (4%)	2 (2%)	1 (2%)
	기타·선법	9 (24%)	5 (20%)	16 (17%)	10 (23%)
박 자	2/2	1 (3%)	0	20 (21%)	3 (7%)
	2/4	5 (14%)	0	7 (8%)	5 (12%)
	3/4	8 (22%)	3 (13%)	10 (10%)	6 (14%)
	4/4	10 (37%)	9 (38%)	54 (56%)	19 (44%)
	3/8	1 (3%)	2 (8%)	0	1 (2%)
	6/8	7 (18%)	6 (25%)	3 (3%)	4 (9%)
	9/8	1 (3%)	1 (4%)	0	0
	12/8	2 (5%)	2 (8%)	0	0
	기타	2 (5%)	1 (4%)	2 (2%)	5 (12%)
	음역 (합창포함)	g-f2	g-f2	G-f2	G-f#2

(3) 박자와 리듬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는 다양한 박자의 악곡들을 수록하고 있는 점이 같다. 그중 4/4박자의 악곡을 두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World of Music」은 전체 악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권의 교과서에서도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민요에서 많이 등장하는 9/8박자나 12/8박자로 된 악곡이 영시 한국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교과서는 전혀 이들 곡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 2/2박자의 악곡은 한국교과서에 거의 수록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미국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고 특히, 「World of Music」에서는 전체 악곡의 20%에 해당하는 악곡이 2/2박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한국에서는 변 박자의 악곡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변 박자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악곡의 리듬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보다 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재즈를 포함하여 대중음악, 뮤지컬, 그리고 여러 나라의 민요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리듬형태의 악곡들을 수록하고 있다.

(4) 선율 및 화성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 양쪽에 수록된 악곡중 동일한 악곡은 단1곡(고요한 밤 거룩한 밤 : Silent Night)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일한 단 선율의 악곡을 서로 비교할 수 없고 악곡의 전반적인 성격을 비교해 볼 때 거의 예술가곡을 수록하고 있는 한국은 전통적 기능화성의 주요 3화음과 부속화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보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여러 나라의 음악과 특히 대중음악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화음구성과 다양한 선율진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요 3화음과 부속화음은 물론 중3화음, 중6의 화음, 중5의 화음, 감7의화음 등의 변화화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5) 음역

한국은 거의 동성 2성부 또는 3성부의 연주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3성부는 물론 혼성 4성부의 악곡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음역이 보다 넓게 나타나 있다. 한국은 교과서 2권 모두 아래 g음에서 f2음까지 2 옥타브에 불과하다. 미국은 G음에서 f2음까지 3옥타브의 보다 넓은 음역을 나타내주고 있다.

2. 가창 곡의 취급실태

한·미 양국의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 곡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양재무의 「음악 2」와 미국에서는「World of Music」을 각각 선정하여 악곡의 용도나 양식에 따른 분류, 가창 곡에서 기악의 활용도, 그리고 가창 곡의 시대별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1) 악곡의 분류

가창 곡의 사용목적이나 용도별로 분류하여 볼 때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가창 곡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가곡이나 민요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종교 곡도 일종의 가곡으로 본다면 한국의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들은 민요 아니면 가곡의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일반 가곡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악곡들을 수록하고 있다. 세분하여 보면 가곡과 민요가 제일 많고, 이어서 종교곡, 뮤지컬(쇼), 그리고 대중음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표3 참조).

따라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폭넓고 다양한 양식의 악곡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10대들이 선호하는 재즈스타일의 대중음악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뮤지컬, 쇼에서 등장하는 음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2) 기악의 활용도

가창 곡이 기악과 어떤 형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또는 가창연주에 기악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비교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교과서의 가창 곡은 절반이상 피아노의 반주부가 있거나 다른 악기로 연주 혹은 장단을 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 교과서의 가창 곡은 90%이상이 기악 반주부가 없는 즉, 성악파트의 악보만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은 5곡이, 미국은 4곡이 각각 악기반주 혹은 선율을 연주하도록 하고 있다. 악기의 종류에 있어서 한국은 피아노 이외에 리코더나 장구를 선호하고 있고, 미국은 색소폰, 베이스기타, 벨 등의 선율악기와 샌드블록, 마라카스, 클레이브, 베이스드럼 등의 무음을 타악기를 선호하고 있어서 미국은 한국보다 다양한 악기들을 가창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표-3> 가창 곡의 취급 실태

교과서 비교내용		한 국	미 국
		음악2 (양재무)	World of Music
악곡의 분 류	민 요	15 (41%)	22 (23%)
	대중 음악	0	9 (9%)
	경축 · 가곡	20 (54%)	27 (28%)
	뮤지컬 · 쇼	0	11 (12%)
	종교 음악	2 (5%)	18 (19%)
	기 타	0	9 (9%)
기악의 활용도	피 아 노	17 (46%)	1 (1%)
	기 악	5 (13%)	4 (4%)
	무 반 주	15 (41%)	91 (95%)
자국의 음악 (민요 · 가곡포함)		17 (46%)	62 (65%)
· 외국음악		20 (54%) (8개국)	34 (35%) (18개국)
학습활동내용을 제시한 가창 곡		23 (62%)	0
가창 곡의 해설난		0	22
감상자료를 위한 가창 곡		3	12
시대별 악 곡	전통 · 민속	15 (41%)	31 (32%)
	중세 음악	0	0
	르네상스	0	9 (10%)
	고전 · 낭만	0	11 (11%)
	근대 · 현대	22 (59%)	45 (47%)
필 수 악 곡		10	언 급 없 음

(3) 가창 곡의 시대별 분류

한국의 가창 곡은 시대별로 분류한다면 전통음악과 창작가곡 등 두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전통음악에 속하는 것은 15곡이고 나머지 22곡은 20세기 중엽 이후 근래에 만들어진 창작가곡이다.

한편 미국의 가창 곡은 한국과는 달리 르네상스시대로부터 근대와 현대에 걸친 여러 시대의 음악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보다 더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수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가창 곡 지도의 접근방법

한국의 음악교과서는 68면에 감상 곡을 포함하여 39곡을, 미국의 음악교과서는 351면에 감상 곡을 포함하여 108곡을 각각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음악교과서는 가창 곡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가창 곡중심의 교과서를 주 교재로 이용하고 있는 한국의 음악 시간은 가창이 학습활동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국의 실정과 유사하게 미국의 음악시간(general music class)에 가창이 수업의 핵심이 된다고 J. Weigand는 언급한 바 있으며, I. Cooper도 가창지도가 중학교 음악지도의 중추적 활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 수업시간에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 곡을 학습단원의 제재 곡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 곡이 학습활동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비교하여 보겠다.

(1) 제재 곡의 학습과정

한국의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37곡중 23곡은 학습단원의 제재 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매 제재곡 마다 학습목표, 학습활동 및 학습정리 등 세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보다 3배가 넘는 양의 악곡을 수록하고 있기는 하나 단원(chapter)에 따라 제재곡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있다. 어떤 단원에 수록된 악곡들은 학습목표나 학습활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단지 가창만을 위하여 수록되어 있고 전체 96곡중 22곡만이 악곡에 대한 해설이나 그 악곡에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한·미 양국의 교과서에서 제재 곡을 각각 선정하여 학습활동의 전개과정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의 제재 곡 “봄노래”(다장조, 6/8박자 여린내기, 2부합창, 모차르트 작곡)와 미국의 제재 곡 “Rosie”(마단조, 4/4박자, 제창과 기악반주, Eisman 작곡)를 선정하였다.

(가) 한국의 단원 : 봄노래 4~5쪽

학습목표 : 여린내기 6/8박자 리듬을 이해하고 낮은 음자리표의 계이름과 가사로 익숙하게 연습하여 2부 합창으로 표현하도록 목표를 설정 하였다.

학습활동 : 6/8박자의 악곡을 2박자로 지휘하고 가락에 맞는 화음을 선택한다. 이어서 낮은 음자리표 보표에 나타나 있는 주된 가락의 조성에 따라 계명으로 노래하고, 높은음

자리표 성부는 허밍으로 노래 부르도록 한다.

학습정리 : 제재 곡의 형식(A(a-a')+A'(b+a''))에 대하여 묻고 6/8박자의 리듬 악보를 보고 마디를 박자에 맞게 구분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 미국의 단원 : Rosie pp. 86~89

가창에 앞서 이 곡을 먼저 학생들이 감상한다. 그리고 감상하면서 두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각 파트를 각자 따라 부른다. 리듬과 선율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각자 느끼도록 한다(감상 부분).

이 곡에서 한가지 음악적 아이디어(musical idea)에 대하여 배운다. 오스티나토(Ostinato)는 리듬과 선율이 여러 번 반복되는 형태라고 설명하여 준다. 그리고 오스티나토에 대한 개념을 실생활에서 생각하게 한다(개념이해 부분).

오스티나토의 리듬악보를 읽고 또 가사를 붙이어 리듬 읽기 한다. 이와 관련된 학습으로 재즈(Jazz)에서 등장하는 오스티나토의 리듬형태를 취하고 있는 리프(riff)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리프악곡을 부른다(표현 및 관련학습 부분).

위의 (가)에서 보논바와 같이 한국의 교과서는 하나의 제재곡에 대하여 학생들이 학습할 목표, 학습 활동 및 학습정리 등의 난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동일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교사도 일관성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의 (나)에서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매 제재곡에 대하여 학습 목표, 학습 활동 및 학습정리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재곡에 관련된 음악 개념들을 설명하거나 그 개념에 관련된 실생활을 생각게 하여 전이 학습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른 악곡을 학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폭넓은 학습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2) 음악적 개념의 취급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음악 학습활용에서 다루어지는 기본 개념의 취급 실태에서도 한·미 양국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장조”나 “음계”에 대한 개념에서 한국은 학습활동 난에 다장조 혹은 바장조 음계 구성원리를 보표 또는 건반악기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밖에 다장조, 바장조의 주요 3화음, 음정 등에서도 그림이나 도표로 잘 나타내 주고 있으나 자세한 설명이나 해설부분은 생략되어 있다. 한편 미국의 교과서는 “장음계” 혹은 “단음계”에 대한 개념을 그림과 함께 자세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가창학습 과정 중에 개념을 배우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개념은 먼저 생각하고 또는 개념에 대한 학습이 먼저 이루어진 후 이와 관련된 가창 곡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보다는 미국이 다양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jazz, musical, show 등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이나 현대음악에 등장하는 12음 기법에 관련된 개념도 다루어지고 있다.

Ⅲ. 맺는말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여 본 바와 같이 한·미 양국이 찬송가를 처음 음악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였던 점에서 서로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유사한 점으로는 한·미 양국이 교과서 내용체계가 3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 이해, 표현, 감상 등이고, 미국은 생활의 음악, 음악의 이해, 그리고 음악의 연주 등으로 되어 있고 단원 혹은 단위로 좀더 세분화 된 것이 다르다. 다양한 조성을 수용하고 있고 그 중에 바장조와 사장조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다양한 박자를 수용하고 있고 그 중에 4/4박자의 악곡이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것이 서로 유사한 점이다. 그리고 양국이 다른 양식의 악곡보다는 일반가곡 또는 예술가곡을 선호하고 있으며 악곡의 대부분은 단 선율의 악보로 수록하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가창 곡의 배열에서 한국은 계절을 참작하여 순서를 정하였고 미국은 시대별로 나누되 시대와 양식에 관련된 음악적 개념별로 연관성이 있는 곡들을 단원 혹은 단위에 따라 수록하였다. 한국의 교과서는 가창 곡의 목차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목차에서 악곡에 대한 정보 즉, 작곡자, 조성, 박자, 그리고 악곡의 연주 형태 등을 제시하여주고 있으나 미국 교과서는 가창 곡을 위한 별도의 목록이 없고 권말의 색인 목록에서 곡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창 곡의 수는 한국보다 미국이 3~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은 2성부 혹은 3성부 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은 혼성4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수록된 악곡의 양식이나 시대면에서도 미국이 폭넓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은 민요 혹은 예술가곡에 국한되어 있고 전통음악 아니면 근대에 만들어진 창작 가곡에 편중되어 있으나 미국은 르네상스로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악곡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중 음악과 뮤지컬 분야도 수록하여 가창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가창 곡을 제재 곡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학습자와 교사에게 의도적인 학습이 되도록 학습 목표, 학습 활동, 그리고 학습 정리를 할 수 있는 학습 난을 제시하여 주고 있으므로 학생전체가 같은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일부분의 곡에만 해설과 개념을 설명하여 주고 있으며 개념 설명에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다. 미국은 고전 음악, 재즈, 그리고 현대음악에서 볼 수 있는 12음 기법에 관련된 음악 등 다양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하여 본다면, 먼저 한국의 음악 교과서는 다양성 면에서 미국에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악곡의 다양한 양식, 여러 시대의 음악 등을 포함시켜서 때로는 많은 악곡 중에서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는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위하여 충분한 지면의 제공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현대 곡이나 뮤지컬 등 새로운 장르도 개발해야 되겠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2.
- 양재무. 중학교 음악2. 서울 : 음악 춘추사, 1996.
- 이홍수 · 황병훈 · 정미령. 중학교 음악2. 서울 : 동아 출판사, 1996.
- 최종진. 음악과 교육론. 서울 : 선일 문화사, 1984.
- Birge, E. B. History of Public School Music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 MENC, 1962.
- Colwell, Richard. "Education in Music", in H. W. Hitchcock & S. Sadie(ed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American Music. London : Macmillan Press, 1986.
- Cooper, Irvin, and Karlo Kuerteiner. Teaching Junior High School Music (2nd ed.).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70.
- Culf, Carmen E., et al. World of Music. Morristown, NJ : Silver Burdett & Ginn Inc., 1988.
- Fisher, J. E.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28.
- Keen, J. A. A History of Mus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Hanover : NJ, 1982.
- Kim, Dosoo. "A Comparative Study of Junior High School General Music Program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Texas, 1990.
- Staton, Barbara, et al. Music and You.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88.
- Weigand, J. J. "Music in the Junior High School, 1990-1957",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9 (1). 1961.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Music Textbooks for Middle School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soo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compare music textbooks for middle schools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This investigation included the organization of music textbooks, the treatment of songs, characteristics in selecting songs, and the approach to instruction of the musical concepts. This researcher found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imilarities, both the Korean music textbook and the American music textbook consist of three areas : Korea has understanding, expression, and appreciation; on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has music for living, understanding music, and performing music. Also both music textbooks between two countries deal with unison, part songs, and folk songs; both countries prefer songs in 4/4 time and songs in the key of F major.

In differences, the Korean textbook is focused on songs because each lesson employs a song as a unit of subject matter. Thus students study singing and basic music theory through the song. In contrast, the American textbook is focused on musical concepts or subjects. Students study musical concepts along with the songs which motivate the student to be interested in musical concepts. The Korea music textbook is organized around songs which are put in seasonal order, and the American music textbook is organized around musical concepts into which songs are put.

The American textbook contains four-part songs, but Korea's does not. The American textbook includes current popular songs and contemporary music, but the Korea's does not. The American textbook contain much more variety of music from many musical styles, historical periods, and concept areas than the Korean textbook does. The musical concepts

in the Korean textbook are not explained in detail; sometimes they have no explanation other than charts or illustratio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Korean music textbook should contain a variety of musical styles, historical periods, and various topics including more many pictures and illustrations to enhance interest in understanding musical concepts. The Korean music textbook not only should motivate students to be interested in songs but also should be designed for in-depth explanations for helping them understand more clearly. In addition, the Korean music textbook needs to be concerned with contemporary songs or popular songs for students' interest.